

휴살림
HEUKSALIM



휴살림 신문 250호를 축하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신규농업인들이 휴살림 농장을 견학한 후, 휴살림 신문 250호를 축하해주었다. 휴살림은 귀농인을 비롯해 농민, 학생,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철학과 실천적 농사 방법, 유기자재 만들기 등의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휴살림 신문은 이런 교육의 자료 역할을 해왔으며, 수강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왔다.

아시아 유기농업 발전 위해 뛰다

휴살림 신문의 앞으로의 역할 기대

휴살림 신문이 5월 제250호를 발행했다. 휴살림 신문은 1992년 6월 <휴과 미생물>이라는 소책자 형식으로 시작됐다. 초기엔 부정기적으로 발행됐지만 1998년 11월 정기간행물로 등록되면서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매달 만날 수 있게 됐다.

■ 운동 매체
소책자로 나오던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온라인이 발달하지 않아 친환경농업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휴살림 신문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 당시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친환경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위한 운동에 앞장섰다. 휴살림캠페인으로 한반도 전체 논농업의 유기농업화를 위한 제초제 안쓰기 운동이나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작업, 친환경 급식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 소비자 만남
이후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만남이 늘어나고,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문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소비자와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친환경농업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들을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또 친환경농산물로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각 가정에서 쉽게 작은 텃밭을 운영하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했다.

■ 아시아로
휴살림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깊다. 장차 그 고민의 대상을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몽골에서 유기농업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필리핀에 휴살림균배양체를 수출해 바나나 재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아시아 유기농업 발전에 휴살림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휴살림 신문은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할 것이다. 휴살림 신문이 더욱 기다려지고, 읽고 싶고, 보고 싶은 신문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임을 약속한다.



토천 이태근의 휴과 함께 살자 <3>

휴살림 신문 250호를 맞이하여

휴살림 신문이 250호를 맞았다.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발행해 온 성과다. 휴살림 신문 속에는 한국농업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뛰어온 휴살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유기농업의 과학화를 위해 재야의 민간연구소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온 흔적과,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로 휴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고자 해 온 노력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 휴살림 신문을 통해 휴살림 회원 농민들과 애정과 신뢰도 함께 나누었다.

하지만 이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은 않았다.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장과 의견에 대한 날 선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정보가 넘쳐나 휴살림 신문의 위상이 흔들리기도 했다. 휴살림 신문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그럼에도 휴살림 신문이 250호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알게 모르게 휴살림을 응원해주신 회원들과 농민, 소비자들의 응원 덕분이다. 휴살림 창립선언문에서 밝혔듯 농업의 토대인 흙을 살려 건강한 농업생산활동과

이를 신명나게 하며 살아가는 농민농촌의 살림이 가장 시급한 이 시대의 과제임을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휴살림은 유기농 기술의 현장화 토착화를 뛰어넘어 아시아로 시야를 넓히려 한다. 휴살림 신문은 아시아의 유기농업 발전에 힘쓸 휴살림과 국내 친환경농업인, 아시아 농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휴살림의 새로운 변화는 또다시 휴살림 신문 속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토종벼 모내기로 그림 그려요 6월2일 휴과 예술의 만남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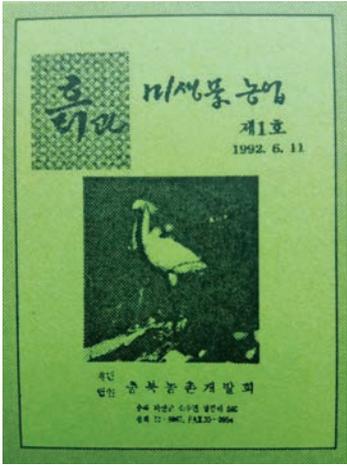
휴살림과 (사)휴과 도시는 6월 2일(토) 오전 10시부터 휴살림 토종농장(충북 괴산군)에서 휴과 예술의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행사로는 토종벼 손모내기 통해 논 그림을 조성하는 것과 설치예술 퍼포먼스,

임옥상과 함께하는 간담회 등이 있다. 이번 행사는 휴과 예술이 연계해 토종 보전과 휴살림의 중요성을 알려 유기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다. 행사 참가 문의 : 휴살림 연구소 043-833-5004

소책자로 시작해 시대 맞추어 계속 변신

흙살림 신문 변천사

흙살림은 1991. 6. 11 괴산미생물연구회로 출발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2. 6. 11 책자형태로 <흙살림> 제1호 <흙과 미생물>을 발행(충북농촌개발회)했다. 이렇게 출발한 흙살림 신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달라지면서 그 형태와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흙살림 신문의 변천사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1992년 6월 제1호 <흙과 미생물> 책자 형태 : 비정기적으로 발행되었어요.

■ 주요 내용
땅심을 키우자, 미생물 농업의 지름길, 왜 흙을 살려야 하는가, 생명토의 엽면살포 사용법, 우리나라의 흙, 작물병의 생물학적 방제,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

2000년 1월 제36호 발행, 흙살림 홈페이지 개설 : 온라인으로도 흙살림 소식과 친환경 농업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됐어요.

■ 주요내용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 흙살림 균배양체의 제조 및 활용

2002년 3월 제57호 발행, 신문 대판으로 변경 : 친환경농업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싶은 마음에 크기를 키웠어요.

■ 주요 내용
모범농가 시리즈 연재, 친환경 인증업무 본격 가동

2003년 6월 제71호 발행 : 격주간 농업전문지 <흙살림정보>지도 창간했어요.

■ 주요 내용
태양열처리, 흙 이야기, 토양생물학, 영양주기이론,



2005년 11월 제100호 발행 : 전문지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어요.

■ 주요 내용
친환경농사 월력, 젊은 농부들 특별좌담회, 전통농업에서 배우자, 흙을 바람에 빼앗기지 않는 방법, 최승 한의사의 건강교실 시리즈.



2014년 3월 제200호 발행 :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 캠페인 진행

■ 주요 내용
유기농업 원로 인터뷰 시리즈, 현장농민연구원 소개, 이철수 판화가 대담, 모잠비크 소개, 토종농장 이야기, 요리레시피,



1998년 6월 제21호 신문 대판으로 발행 : 신문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요.

■ 주요 내용
흙살림 순환농법(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순환체계 확립), 환경을 살리는 농업,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 석회보르도액 석회유황합제에 대하여



1998년 11월 제23호 발행,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 : 흙살림 출판 등록, 정기간행물 등록(등록번호 충북라 01025), 이때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했어요.

■ 주요 내용
유기재배의 원칙, 유기자재 제조법, 숯과 미생물, 겨울철 육계 사양관리,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 우렁이 농법

발행처 충북 괴산군 불경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처 (사)흙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석종욱 | 편집위원 장 경우창 | 편집위원 박석준 오철수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367-911)충북 괴산군 불경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363-885)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363-923)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367-912)충북 괴산군 불경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 | 흙살림연수원 (367-911)충북 괴산군 불경면 한불로 영천6길 11-1·전화 043)833-5004

뜨거운 여름철!
아직도
고온장애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온실온도를 **확!** 내려주고
생산량을 **쑥!** 올려줍니다

친환경 자연제거형 온실차광 코팅제

저렴한 비용, **단 1회** 차광코팅으로
여름철 하우스 고온 해결

- 단 한번 시공으로 3~4℃ 온도 하강 효과
- 선택적 광차단으로 작물 생육 극대화 효과
- 광조절 코팅제와 설계기법을 도입한 국내 최초 고기능성 온실 차광제

탁월한 온도
저하 효과

경제적인
투자

호합비율 조절로
차광률 선택 가능

생산성과
품질 증대

RDA 농촌진흥청

본 제품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에 연구소와 공동 연구 개발한
특허기술(10-2015-006187)을 이전 받아 노루페인트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구입 및 문의사항: 080-333-8179(3) | 입금처 323-01-063992 농협

연구회에서 시작해 인증·분석·유통 발전

흡살림 신문으로 본 10대 뉴스

흡살림 신문이 250호를 맞는동안 흡살림은 27년간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전방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흡살림 신문은 이런 흡살림의 역사를 기록해온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다. 흡살림신문을 통해 흡살림의 주요 10대 뉴스를 간추려 본다.

1 1991년 6월 11일 흡살림의 전신인 괴산미생물연구회 발족.
 - (재)충북농촌개발회, 괴산소비자협동조합, 농민들이 참여한 조직으로 친환경농업 발전의 첫발 걸음을 내딛었다.



2 1993년 6월 11일 흡살림연구소 창립
 - 한살림, 충북농촌개발회, 괴산소협, 음성소협, 새농회, 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농업의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창립.



3 2000년 8월 흡살림 바이오시대 열다, 사단법인과 주식회사 분리.
 - 회원 중심의 흡살림운동 조직의 사단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조직을 분리. 환경친화적인 생물비료와 생물농약 등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기반을 다짐.



4 2002년 1월 민간인증기관 지정
 - 민간 인증 기관 제1호로 지정.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 시대를 열. 3명 이상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과정과 생산자의자질 등을 인증 중요 기준으로 제시.



5 2004년 6월 흡살림연구소오창센터 공인분석기관 지정.
 -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이화학분석시험, 잔류성 시험, 미생물농약 시험 3가지 분야 공인받음. 이중 미생물농약 시험 분야는 2000년에 지정받음.

6 2006년 4월 흡살림 미생물 농약 1호 '잎살림' 등록 - 미생물연구 15년의 쾌거
 -식물체 표면에서 생존이 유리하면서 미생물 자체가 분비하는 물질이 병원균 균사와 포자를 변형시킴. 특히 딸기흰가루병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검증됨.

7 2008년 7월 흡살림, 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 받아
 - 도시서민, 농민, 귀농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재배기술 교육과 실습지원, 유기농산물 생산·인증·유통 현장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토종 종자의 보전, 유기농업을 과학화하기 위한 현장 농민과 연계한 작물별 시범재배 농장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8 2010년 1월 <도시에서 흡살림운동을>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유기농업리더 입문과정 개강, 도시생활 유기농자재 출시, 상자텃밭 보급행사, 상자텃밭 재배법 교육, 2012년 서울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프로그램 참여, 서울 광화문광장 상자밭 전시.

9 2011년 6월 토종연구소 개소
 -흡살림 20주년 맞이 신축, 토종종자 보존과 토종종자 가공을 위해 다양한 연구 장비를 갖추. 2013년 4월 '토종순례단' 활동.

10 2016년 3월 흡살림균배양체 필리핀 수출
 -국내 최초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필리핀에 수출. 흡살림균배양체그린 24톤 출고, 이후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약 70톤 수출.



흡살림 신문 250호 축하 메시지

김주숙 축하! 흡살림신문 250호. 우리 농민 농업 농가의 참답고 영원한 수호자 되시길!
조기진 꼭 필요한 정보 많아 공유합니다. 감사
이영현 이 회장님 축하드리구요 그 많은 세월 유기농업육성을 위해 헌신하신 그 흔적 후세들이 기억할겁니다 ~~~
김철열 축하드립니다 ^^ 너무나 멋지십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선구자 이십니다
류갑희 흡살림 250호를 축하드립니다. 이회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큰 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수정 한국 유기농업의 상징 흡살림의 250호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유익한 농업의 정보와 한번 더 유기농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유기농업분야에서 체계를 잡아주셔서 든든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김영하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유기농업의 과학적 논리를 세

우신 공은 영원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1000호를 향해.
박재동 흡살림신문 250호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유기농의 기초를 다지는 초석이지요.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곽해묵 축하합니다
최성원 축하드립니다
김성철 축하드립니다
나상기 흙을 살리는 흡살림운동! 흡살림 신문 창간 25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정열 온전히 흙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삶으로 생명농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삶도 생명을 살리는 삶이 한 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흡살림 신문 250호~ 축하드립니다.
김일호 흡살림 신문 250호를 축하 드립니다. 회장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류훈모 흡살림 신문 창간 250호 축하합니다. 유기농업의 기둥이 되어주길 기원합니다.
권미아 250호! 축하드립니다!

500호까지 이제달음질을!
정학수 축하드립니다
박해욱 축하드립니다.~~~
김은혜 흡살림 250호 축하드립니다. 500호를 향하며 흡살림 우리농업살림의 큰 희망되시길 기원드립니다
Young Hee Shin 흡살림 신문 250회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박천창 흙을 살리는 흡살림운동! 흡살림 신문 창간 25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항상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민양운 축하합니다. 흙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흡살림, 만세~~
천호균 흙 살리는 큰 업적 진행보 축하합니다
박진도 축하합니다. 전국이 유기농을 하는 그날까지.
김남진 축하합니다. 옛날 푸른 금수강산이 그립습니다.
심재훈 축하합니다. 흙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흡살림운동이 계속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박호진 흡살림신문 250호 출간 축하드립니다. 지금껏 달려

온 흡살림의 행진에 동행하겠습니다. 흙과 생명을 살리는 흡살림 존경합니다. 파이팅!
Kumza Jung 축하드립니다. 20여년의 긴 세월은 대단한 일이지요 흡살리는 일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 소중한 일을 하시는 흡살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대건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농업의 자랑입니다
윤태희 흡살림 신문 250호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지합니다.
임자 정훈백 축하드립니다.
도상록 흡살림 신문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올립니다.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아가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500호 1000호 쪽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수광 이태근 회장님 동분서주 활동하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흡살림 발전이 나라 발전 이기에 항상 마음으로 응원합니다.건강 하세요.
이병화 축하드려요
김상현 250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지은 흡살림 신문 25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더욱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방미진 흡살림 신문 25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500호..1000호 발행까지...가즈아!!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흡살림 자랑스럽습니다. 화팅입니다!!
김영우 회장님..250호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
강종건 기업가이기도 하신 분이 돈도 안되는 신문을... 흙과 농업을 되살리겠다는 사명으로 쌓아오신 흡살림 신문 250호 발행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흡살림을 더욱 응원합니다.
순열이 흙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생명들 살리러 함께 펼쳐나가보아요!
Jongick Lee 우리의 미래를 위한 멋진 여정에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세계로 확산되는 흡살림의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송기호 역경뎛고 끈질기게 흡사랑! 흡살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 있는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대안 유통 ‘꾸러미’ 좌담회

■ 일시 : 4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 흠살림 청주센터(청원구 북이면)
 ■ 참석자 : 이태근(흠살림 회장), 서성내·방미진(꾸러미 담당자), 최영주(식생활교육청주네트워크), 변인옥(청주녹색소비자연대), 최정분(충주 생산자)

흠살림 신문이 250호를 맞아 유기농산물 대안유통으로서의 꾸러미를 돌아보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좌담회를 가졌다. 흠살림 꾸러미는 ‘생산자 중심의 유기농산물 유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010년 4월 ‘우리집 생활꾸러미’로 사업을 개시했으며, 2011년 9월 과일꾸러미, 2012년 5월 채소꾸러미, 2017년 알찬꾸러미를 새롭게 내놓았다.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 이태근 흠살림 회장과 꾸러미 실무자, 꾸러미 소비자이면서 식생활 운동과 소비자 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 최영주 씨, 변인옥 씨, 꾸러미 농산물 생산자인 최정분 씨가 한 자리에 모여 꾸러미의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편집자 주

이태근(흠살림 회장) : 꾸러미를 시작한지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꾸러미는 한살림이나 생협이 유통 방식과는 다른 친환경 농산물 대안 유통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컬푸드가 떠오르면서 꾸러미는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은 <흠살림>과 <언니네 텃밭> 정도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꾸러미를 시도했다가 중도포기한 곳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꾸러미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자체가 침체기에 빠져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지만 무농약에 정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꾸러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미진(흠살림꾸러미 담당자) : 꾸러미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소비자 만족도와 개선점이 궁금합니다.



소비자 교육이 급선무

최영주(식생활교육청주네트워크) : 개인적으로 친환경 먹을거리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자연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시민에게는 자연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특히 유기농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친환경 농산물이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소비자가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정책담당자에게

생산자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교육에 더 투자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친환경인증 마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이런 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접근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태근 : 현재 흠살림 꾸러미를 소비한 사람들의 숫자만 따지면 1만명 정도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 꾸러미를 끊은 분도 많은데 가장 큰 이유가 업체류 등이 남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는 오히려 업체류 등이 모자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인옥(세종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저는 흠살림 꾸러미를 초창기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기농 식자재는 흠살림이 유일하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선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곧 국민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오염된 땅에서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리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멀리 내다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큰 시각으로 본다면 현재 꾸러미 포장부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걀, 블루베리 등은 쉽게 파손되다보니 충전재와 냉각재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꾸러미 박스를 다양하게 해서 충전재를 조금 사용할 수 있

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작별로 꾸러미 냉각재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걸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문을 비롯한 언론에서 건강과 관련된 음식 등 먹을거리 정보가 넘쳐납니다. 흠살림은 친환경농산물을 기본으로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 꾸러미 등을 만들어보는 거죠.

세 번째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꾸러미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형식으로 간편식이 가능한 메뉴를 개발해보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장보기가 불편한 노인에게도 꾸러미는 더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정분(생산자) : 올해로 귀농 19년차를 맞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농사에만 전념하며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꾸러미를 먹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토마토, 브로콜리 등을 농사짓고 있는데 대파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열두 달 짓는 게 아니다 보니 대파를 사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트에 가보면 대파 값이 엄청 비싸더군요. 하지만 흠살림 꾸러미를 먹으면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 좋습니다. 또 이웃에 대파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는데 농약을 엄청 많이 칩니다. 반면 제가 유기농으로 농사지어 흠살림 꾸러미에 납품하듯 다른 먹을거리도 저처럼 안전하게 키운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에 꾸러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3일 흠살림청주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보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좌담회를 가졌다.

이태근 : 지난달 베트남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흠살림에서 공급한 퇴비로 바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바나나는 1년에 70회 정도 농약을 칩니다. 비행기나 광역살포기로 5일에 한 번씩 뿌립니다. 인삼도 거의 5일에 한 번 농약을 치죠.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 겨울엔 뿌리지 않는 게 다른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나나를 많이 먹는데, 이런 농산물이 얼마나 농약에 오염되어 있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또다른 예로 일반 관행으로 키우는 애호박은 벌이 없을 때 수정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보기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기 좋은 것만 찾습니다.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뇨용 꾸러미 만들자

변인옥 : 일단 흠살림 꾸러미를 한 번 먹어보면 흠살림이 보내주는 친환경농산물이 좋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실제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분이 있습

니다. 시금치 굽기가 엄청 더군요. 맛도 좋고요. 5년간 친환경농법으로 인삼 재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런 생산자들과 연계해서 철저히 관리한다면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21세기는 음식산업이 주요산업이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토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이나 인스턴트를 먹으면 가려움이 심했습니다. 산속에서 황토집에 생수 먹으며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 몸이 좋아졌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분 : 유기농 인증을 받기 전 땅을 빌려 애호박을 키웠는데 잔류농약이 아주 조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농약 한번 치지 않고 길렀는데 말이죠. 예전에 뿌렸던 농약이 검출된 것입니다. 농약을 치고 난 몇 년 후에도 농약이 묻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흠살림이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흠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흠살림이 바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GAP, HACCP 등 영어로 쓰여있는 게 좋다

“소비자 교육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모여 유기농산물 대안유통으로서의 꾸러미를 돌아

지키면서 변화를 주려합니다.

소비자도 생산자도 잉여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양을 잘 조절해보려 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도 개선하고 맞춤형 꾸러미도 계획 중입니다. 신문과 온라인을 통해 얼굴있는 생산자를 늘리려 합니다.



훤이 살아야 몸이 산다
최정분 : 일반 관행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유기농이 어디 있어? 친환경이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소비자가 교육을 받아야 유기농, 무농약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옆 농가에서 무농약으로 브로콜리를 키웠는데 시장에서 제값을 인정받지 못해 포기하려 합니다. 현실은 물론 행정도 HACCP이나 GAP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훤이 살아야 몸이 삽니다. 훤은 1~2년, 4~5년 해서 살려지지 않습니다. 정말 훤이 중요합니다.

이태근 : 꾸러미가 지속가능함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꾸러미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장해야 가능한 일인데 정채 중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인척마켓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꾸러미도 발전해야 하는데 새로운 대안이 있을까 이

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최정분 : 한 달에 4번씩 배달되는 꾸러미를 소화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양이 많은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레시피를 줘도 요리를 해서 먹는 경우가 별로 없는 듯합니다. 반대로 장 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제철 것을 먹고 필요한 것은 추가 구입할 수 있어 꾸러미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것이 배달될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연령층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변인욱 : 한살림이나 자연드림 등 매장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어 확인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시매장을 통해 꾸러미를 주문 받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최영주 : 엽채류가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샐러드용 해 먹었더니 그 많던 채소가 금방 사라지더군요. 요리교실을 하고 시장에 나가보면 그 식재료만 없어요. 이처럼 꾸러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메뉴를 좀 더 전문화시켜서 소개하면 어떨까요. 금요장터에서 요리사가 직접 그날 재료를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꾸러미와 관련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급식을 보면 선생님들이 음식 재료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은 채소가 들어가도 잘 먹는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아이들 입맛을 맞추려고 채소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청주는 교원대나 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변인욱 : 주변을 살펴보면 환자들을 위한 밥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꾸러미에 도시락 개념으로 판매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프신 분들이 유기농산물을 먹고 낫는다면 그것이 최고이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전국민이 전부 유기농을 생산하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쌀값이 비싸진다면 이게 바로 제값이라고 인식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생산자 중심 유통 모색
이태근 : ‘유기농산물이 약이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뇨꾸러미 등 몸에 좋은 꾸러미를 구상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는 꾸러미 품목위원회를 만들어서 꾸러미 품목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매달은 힘들더라도 자주 모여서 품목 평가도 해보고 품목 선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농산물과 다른 유통 형태로서 꾸러미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꾸러미가 꾸러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을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생각합니다. 무농약이나 유기농에 대한 지식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제초하며 어렵게 유기농업을 하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유기농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든 적도 있지만, 내가 포기하면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성내(훤살림 직거래사업부장) : 서울 광진구 등에 도시농업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강의를 하다보면 의견이 반반 갈립니다. ‘이렇게 힘든데 유기농은 거짓말이다’라는 생각과 ‘농부들의 수고가 참 많다’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훤살림꾸러미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소비패턴이 꾸러미에 맞추어 변화되신 분도 있습니다. 꾸러미의 장점은 생산자 입장에서 소농의 규합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리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꾸러미의 기본 정신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친환경농산물 1호 인증기관



한국농식품인증원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



한국농식품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취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간간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10-8 은산빌딩204호(각리640-3)
 전화 043-212-0934 전송 070-8677-3320
 홈페이지 www.kafc.kr 이메일 admin@kafc.kr

“신문 통해 유기농계 이슈를 주도”

휴살림 신문 역대 편집자 간담회

- 일시 : 4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휴살림 청주센터(청원구 북이면)
- 참석자 : 이태근(휴살림 회장), 이우성(2003년~2007년), 최시영(2008년~2009년), 함유경(2010년~2011년), 이셋별(2011년~2013년)

이태근 휴살림 신문이 5월 제 250호를 맞는다. 개인적으로 대학 다닐 때 학보 편집장을 했고, 농촌개발회에 있을 때 신문 모음집을 만드는 등의 경험이 있어 이런 인연으로 신문이 계속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휴살림 신문에는 휴살림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모두 담겨있다. 휴살림 신문의 명맥을 지켜온 여러분들의 소회와 앞으로의 방향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

이우성 2002년에 귀농했다. 아니, 휴살림이 귀농시켰다(하하하). 휴살림에서 농사일을 배우면서 2년차부터 신문제작 일도 겸했다. 당시 조그마한 농민단체에서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 귀하게 보였다. 그때 신문의 주된 내용은 현장 속 농민을 찾아나선 것이었다. 제일 먼저 기획한 것이 유기농 1세대 <참농부> 시리즈였다. 열 몇 분을 만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다. 그분들의 이력과 농사법을 소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유기농업의 간접체험이 됐다. 이 내용을 엮어 책으로도 나왔다. 다음은 여성 농민 시리즈였다. 여성 농민의 위치가 부각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역할을 소개했다. 그 다음으로 젊은 농부들 시리즈가 이어졌다. 15년 여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그 농부들이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젊은 농부들을 발굴해서 취재한 것이 큰 역할이었다. 또 전통농업위원회를 만들어 토종을 찾아 전국 각지를 다녔다. 수집된 씨앗을 중심으로 토종 연구소를 만들어 아직까지 잘 보존하고 있다. 이외에 중요한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취재했다. 유기농업의 선구자 역할을 신문이 앞장서서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신문은 하나의 기록이고 역사다. 의미 있고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하며 그 일에 보람을 느꼈다. 이태근 회장의 소명 의식으로 시작한 것인데,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시영 2008년 무렵부터 신문을 맡았다. 그때는 사회적 기업

을 통한 일자리 창출, 친환경급식 등에 대한 접근이 주된 테마였다. 귀농귀촌 농부학교와 농업 마이스터 대학도 운영했다. 휴살림 20주년을 맞아 친환경 자재 중심으로 갈 것인지, 유통 중심으로 갈 것인지 몇 차례 토론이 이어지면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2010년엔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하며 도시농업 기획이 많았다. 2009년엔 서울 수서 임대 아파트 안에 음식퇴비화 텃밭을 조성했다. 토종에 더해 도시와 관련된 일이 많아진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토종벼 화분 등을 전시하고, 청주 교대에서 어린이날 행사 등을 진행했다. 농부보다는 소비자, 꾸러미 회원들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꾸러미의 경우 장터를 개설해 운영하다 소비자들이 ‘장보기 어려우니 배달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하면서 시작한 기억이 난다.

함유경 2010년 경 부터 신문 일을 담당했는데, 농민 위주였던 것에서 농민 반 소비자 반 정도로 대상이 달라졌다. 농민 대상으로는 신제성 박사의 흙에 대한 글과 생산 농가 취재가 있었다. 소비자들에게 아직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유기농산물을 설명해주는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다. 또 소비자들을 생각해 요리법도 넣고 텃밭 만드는 법 등을 소개했다. 개인적으로 현장 농가를 취재했던 것을 모아서 청주시 <1인 1책 퍼내기 운동> 사업 지원을 받아 책을 내기도 했다. 농업에 대한 공부도 많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셋별 2011년 쯤에는 신문을 정기후원회원 중심으로 운영했다. 비용과 효율성을 따져 이 때 1만부에 가까웠던 신문 부수가 3,000부로 줄어들었다. 당시 신문은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한 달에 한 번 현장농민연구원 회원들이 모여 농가 현장을 찾는 기획 기사가 있었다. 꾸러미 회원과 후원



휴살림 신문 제작에 참여했던 역대 편집자들이 모여 과거 신문 제작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회원들에게 편지를 받아 신기도 했다. 토종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와 박람회 등에 참가하면서 휴살림 소식만으로 신문이 짝 잘 정도였다. 시농제와 토종전시포 방문,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태근 집필가들의 글을 모아 단행본 등의 성과를 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또 예전 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옮겨쓰면서 항의를 받은 기억도 난다. 농민단체에겐 ‘데모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실현하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가시돌힌 말도 들었다.

이우성 초창기 휴살림에선 매

이태근 괴산 앵천리 공장의 뒷밭에 100여평 정도 토종벼를 심기도 했다. 이것이 증식돼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최시영 마로니에 공원의 마르쉐 장터에 가면 토종 막걸리 등을 시음하고 토종 지도를 볼 수 있는 행사가 있다. 이런 것들도 다 휴살림이 씨를 뿌린 덕분이라 생각한다.

이우성 휴살림 신문을 통해 전달된 것들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휴살림 정보지를 출처로 한 논문이나 글도 많다.

최시영 스토리펀딩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하나의 상품 등과 매치해서 온라인 상에 띄워볼 수 있을 것이다.

이태근 최근엔 신문 편집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다. 시간이 되시면 참가해서 의견을 나누면 신문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신문의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해주면 좋겠다.

이우성 지금 신문을 보는 독자들은 소비자가 많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농민들의 삶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예전의 젊은 농부들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 조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요즘은 젊은 귀농인들도 많은데 이들 20~30대 귀농인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 말 그대로 시골살이에 대한 이야기도 담겼으면 한다.

함유경 유튜브를 보면 짧은 동영상에 인기 끌고 있다. 신문 내용을 중심으로 1인 TV

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휴살림 신문의 단독 TV도 재미있지 않을까. 신문을 기본으로 해서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해봤으면 한다. 사단법인의 교육 일부라도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해 조금씩 공개해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셋별 귀농자들에게 읽을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농촌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최시영 휴살림이 하는 일이 운동과 다르지 않았다. 그럴 때 만든 신문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지금은 농가도 휴살림을 유통업체로 바라보고, 거래처로 바라본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바라본다. 휴살림이 농가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이와함께 대담이나 행사 등에도 포커스를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태근 지금의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속가능한가’의 고민이 깊다. 이제는 눈을 돌려 아시아에 유기농업을 확대해 볼 생각이다. 젊은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해외로 파견하는 것 등을 고민하고 있다. 아시아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라 생각한다. 유기농 2세대들을 우리의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로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휴살림 신문도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휴살림이 앞으로 나아갈 길, 휴살림 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어 감사드립니다.

매년 캠페인 진행해 실천 방안 제시

이젠 아시아 유기농 발전에 한몫 기대

년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중 하나가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였다. 제초제 안쓰기 등 큰 이슈를 만들었다. 유기농업에 있어 휴살림 신문이 꽤 영향력을 끼쳤다. 항의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눈여겨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듯 신문이 유기농업과 관련한 정책에 기여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태근 휴살림 신문을 통해 <한반도 논 전체의 유기농업화> <농민월급제> <농민들의 단체교섭권> 등의 토론과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주제들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시영 휴살림이 유기농업판에서 이슈를 선점했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토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곰팡이를 통한 부식으로 탄소를 붙잡자

지구 온난화를 막는 방법

토양 유기물로 탄소 저장 대기에 저장되는 양 2배

나는(NTS 대표)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매년 12개국을 여행한다. 나는 토양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200년 후에는 우리 대기에서 과잉상태의 이산화탄소 함량이 1975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여전히 우리의 탄소배출량은 너무 높아서 해양은 지속적으로 더워지고 산성화 될 것이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일까?

대답은 '아니오!'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는 다음의 5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1. 우리는 새 탄소를 만들 수 없다. 시작 시점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 수는 같으며, 3가지 저장 시스템 사이에서 이동한다. 탄소는 부식으로 토양에 저장되거나, 탄소기반 생명체(식물, 동물 및 사람) 또는 대기(CO₂ 와 메탄)에 저장된다. 탄소는 탄소순환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이들 세가지 저장고 사이를 이동한다.

2. 이 탄소원 중 가장 큰 부분은 토양에 저장된다. 사실, 유기물로 토양에 저장되는 양은 대기에 저장되는 양의 거의 두 배다(1,559기가 톤 대 800기가 톤, 역자 주) 기가=10억 배)

3. 토양에 있었던 탄소의 2/3는 지금 대기에 있다. 지구 토

양의 유기물 함량은 평균 5%에서 1.5%로 낮아졌다.

4. 이 탄소 광택은 역사적으로 토양에 기반한 것인데, 지금 열을 붙잡아 해양을 데우고 우리 기후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층을 두껍게 하는 주범이다.

5. 해법은 대기 중의 탄소를 그것이 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토양에 유기물을 늘릴 때 효과적으로 탄소 순환이 이루어진다. 유기물을 늘리면 대기로 돌아가야 할 탄소를 토양에 격리하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안정된 유기물을 만드는 토양 생물로부터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불행히도, 현대 농업은 이들 부식형성 도우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먹거리 생산에 있어 보다 생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중심 주문은 "주면 당신은 받을 것이다"라는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다.

이제 '시급한 과제인 안정된 탄소의 형성과 관련하여 우리의 지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가장 높은 작업자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 곰팡이 구하기

여러분은 잔디를 깎은 부산물로 퇴비를 만들어 보통의 양을 정원에 뿌리고 나면 토양이 검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농부들은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존재이다. 토양 유기물로 저장되는 탄소의 양은 대기에 저장되는 양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 토양에 다시 가보면 토양은 종종 원래 색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지구를 구하는> 형태의 부식이 아니다. 안정된 부식은 곰팡이가 만들며, 이 형태의 탄소는 35년 이상 우리 토양(그리고 대기 밖)에 남는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안정된 탄소 저장을 책임지고 있는 유용한 곰팡이가 슬프게도 우리 토양에 없다는 것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균제, 제초제, 살선충제, 과다 경운, 긴 황무지 기간 및 산/염류 비료로 그들을 죽여 버렸다. 이들 생물의 한 그룹인 균근균은 단지 10%만 남아있는 수준까지 죽임을 당했다.

남아 있는 우리의 곰팡이 작업자로 이뤄진 미생물 제제와 곰팡이가 우점하는 퇴비차를 토양에 사용하고, 부식, 해초,

피복작물로 이들을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 균근균은 글로마린이라고 하는 끈적한 탄소기반의 물질을 방출하며, 이것이 토양에 있는 모든 부식의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엘론(Elon Musk) 같은 다국적 기업이 화성의 메마르고 붉은 사막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꿈꾸는 동안 우리는 지구라고 불리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귀중한 보석의 생물학적 본질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20,000개의 선충을 확인하고 명명했지만, DNA 분석결과 100만 개 이상의 다른 선충 종들이 우리 발 아래에 거의 이해되지 않은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확실히, 우리는 우주 탐험에 쓰이는 수십억 달러의 일부를 우리 먹거리를 키우는 우주-우리를 구할 수 있는 토

양-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돌려야 한다.

이 시점에서, 생물학적 토양해법은 지구 온난화 위기에 대한 유일하면서도 타당한 방법이다. 방출 감소는 단지 필연적인 결말을 늦출 수 있을 뿐이며, 오히려 배출 증가의 가능성이 더 크다. 중국은 1600개의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를 주문했고, 그들은 62개국을 연결하는 1조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콘크리트 생산은 두 번째로 높은 CO₂ 오염원). 우리는 함께 뭉쳐 탄소를 토양에 되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스러운 사명으로서 부식 형성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

번역 최관호 휴살림 연구위원장
출처 호주NTS뉴스레터

휴살림 광합성세균

빛모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순수 종균 배양으로 더욱 더

고밀도, 고효율화 된 빛모음(PSB).

소량으로도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밀도 광합성세균

빛모음 PSB 500ml

-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등재
- 고밀도로 농축된 종균 순수 배양 제품
- 농업 및 수산업에 사용 가능



친환경 수질 환경 개선제

빛모음 PSB 500ml

- 고밀도 광합성 세균
- 수족관, 양어장, 애완동물 환경 개선
- 수질 정화 및 악취 제거 효과

열매채소는 40~50cm 재식거리 지켜라

텃밭농사 연대기<2>

모종 옮겨 심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느 텃 완전한 봄이 되었다. 쟁기질의 재미에 빠진 도시농부들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공격에도 아랑곳 않고 텃밭에 나가 퇴비를 뿌리고 흙을 골라가며 밭 만들기 여념이 없다. 이제는 동네 변화가에 만나기도 길거리에 늘어놓고 파는 모종들이 제법 보인다. 파릇파릇한 모종들은 종류도 참 다양하다. 온갖 종류의 모종을 구경하다보면 평소에 먹기만 할 줄 알았지 내가 먹는 채소며 과일이 어릴 때 어떤 모습인지 도통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비록 손바닥만 한 텃밭이지만 이것도 심고 싶고 저것도 심고 싶은 욕심이 끝도 없다. 동시에 고만고만해 보이는 모종 가운데 더 실한 놈으로 고르기 위한 신경전이 시작된다. 그런데 과연 어떤 모종이 좋은 모종일까?

들 하는데 사실 '적당히'라는 표현만큼이나 어려운 말이긴 하다. 하지만 직접 보면 느낌이 온다. '짱짱'하다는 게 어떤 건지. 줄기가 곧고 단단하게 뻗어있고 잎이 고르게 달려있으며 진한 녹색이 선명한 모종을 찾으려 한다. 이왕이면 모판에서 뽑아 뿌리도 살펴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모판을 살짝 들어서 모판 밑으로 하얀 뿌리가 빠져나온 것을 고르면 좋다. 나중에 모판에서 모종을 뽑았을 때 흰색 뿌리가 풍성하게 휘감겨있으면 건강한 모종이다. 사실 줄기나 잎이 조금 왜소하더라도 뿌리만 잘 자라 있으면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 좋은 모종을 골랐다면 이제부터 진짜 농사의 재미에 빠져들 시간이다.

2. 작물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제법 그럴듯하게 이랑과 곶도 만들고 모종을 심어 놓으면 보기 좋은 텃밭이 되리라 기대했지만 막상 심어놓고 보니 여전히 황량하기 그지없다. 작물별 재식거리라는 것을 지켜서 심었건만 아직은 조그마한 모종이라 언제 저 넓은 공간을 다 채울까 싶다. 초보 텃밭농사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다. 작은 모종 한 개가 몇 달 만에 사람의 키 만큼 자랄 수 있다는 사실! 모든 식물은 뿌리와 줄



모종은 줄기가 곧고 단단하게 뻗어있는 짱짱한 것을 골라 작물별 재식거리를 지켜 심는 것이 중요하다.

1. 모종은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농사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보통 모종을 고를 때도 키가 크고 잎이 많이 달린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모종은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다른 모종에 비해 키가 쑥 자라있는 것은 보통 옷자란 것일 가능성이 크고 잎이 다른 것 비해 많이 달린 것은 너무 자라서 심을 시기가 지난 것일 수 있다. 흔히 '짱짱'해 보이는 모종을 고르면 된다고

기를 뺀을 공간이 넉넉할수록 크게 자란다. 물론 뻣뻣하게 심어도 죽지는 않겠지만 크고 실하게 키우기는 어렵다. 작물들이 적당히 다른 개체들과 경쟁하면서 잘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바로 재식거리이다. 보통 많이 심는 열매채소들은 40~50cm 간격으로 심고 상추는 20cm 내외 간격으로 심는다. 작물을 심는 데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재식거리보다 작물을 뻣뻣하게 심는 것을 밀식이라고 한다. 밀식상태가 되면 나중에 작물이 자랐을 때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장마철과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병에 걸리기 쉽고 발병 시 전염속도도 더 빠르다. 때문에 건강한 생육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공간은 필요하다.

3. 모종도 이사하면 몸살을 앓는다.

간혹 작물에 너무 애정을 쏟은 나머지 시도 때도 없이 비료와 약을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조금이라도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곧바로 영양제를 듬뿍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막 심은 모종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치아도 나지 않는 아이에게 밥을 떠먹이는 것과 같다. 사람도 거주지가 바뀌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몸살을 앓기도 하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모종은 밭아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라 매우 연약하고 민감하다. 어떤 환경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정착지에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한다.

작물의 뿌리가 토양에 잘 자리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소위 말하는 적응기이다. 원뿌리가 토양 깊숙이 내려가 자리를 잡고 잔뿌리들이 토양의 알갱이를 휘감아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지상부의 줄기와 잎들도 쑥쑥 자라기 시작한다. 때문에 이때 바로 비료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 비료의 성분이 토양의 농도를 높여 자칫하면 삼투압현상으로 막 자리 잡으려고 하는 작물 체내의 수분까지 뺏어갈 수 있다. 작물을 위한 마음은 잠시 아껴두고 그저 물만 충분히 주면 된다. 한 가지 팁. 뿌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는 '휴살림 빛모음'과 같은 미생물을 물과 함께 주면 좋다.

글 송지은 농자재팀



상자텃밭용 유기배양토 작은텃밭 18L
유용미생물과 양질의 유기물 등으로 배합, 발효되어 가볍고 영양 가득! 작물재배에 알맞습니다.



텃밭용 부숙 발효 퇴비 휴살림균배양체그린 10kg
작물에 천연양분, 미생물, 발효유기물을 동시에 공급! 작물 심기 10일 전에 살포하고 밭을 만들어 줍니다. 5평 텃밭에 1~2포 정도 사용하면 돼요.



상자 텃밭용 발효 퇴비 원예용흙나라 1kg
유기농 원료로 부숙, 발효된 유기질 퇴비. 작물이 심어진 화분에 한 주먹씩 공급하면 충분합니다.



텃밭용 종합관리세트 텃밭사남매
병이 생겼을 때 - 잎살림S
작물을 튼튼하게! - 잎나라
작물에 생기를! - 비타엑스
벌레가 생겼을 때 - 진달래그린



실내텃밭으로 안성맞춤 그로우백 21L
잎채소용과 열매채소용 두가지로, 손잡이와 물빠짐 구멍이 있어 실내 텃밭으로 안성맞춤!

농민·농촌·농업의 이해가 귀농 첫걸음

귀농·귀촌이야기<4>

환상·편견 버린 객관적 시선이 중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환상과 편견 둘 모두를 동시에 가지고 농촌을 바라보는 것 같다. 농촌은 어디든 고향 같아서 나를 포근하게 받아줄 수 있는 곳인 동시에 또한 낯선 이방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곳으로 말이다. 사실 그렇다. 농촌은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곳 같기도 하면서 어찌면 도시보다 훨씬 더 싸늘한 곳이기도 하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도시보다 오히려 더 매몰차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 말이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농촌을 그리워하고 자연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면 우리 모두 궁극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행히 우리가 가고자하는 농촌은 아직도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다고는 하지만 농촌은 여전히 도시의 각종 공

해와 오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인정이 살아 있고 마을 공동체도 아직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곳에는 우리의 친척들이 살고 있고 그 옛날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농촌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농촌은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농민은 과연 행복할까? 물론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는 우리를, 그들은 반겨줄까? 바라건대 반겨주길 바랄 뿐이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대해서 우리의 농촌과 농민,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는 삶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보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첫걸음은 미래의 우리 이웃이 될 농민과 우리의 삶터가 될 농촌, 그리고 우리의 생계와 직결된 농업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이해하는 것이다.

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레야만 우리는 귀농 혹은 귀촌이라는 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예기치 못한 난관을 뚫을 수도 있을 것이다.

농촌을 과거의 고정된 시각과 관념으로 바라보다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십상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환상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첫걸음은 미래의 우리 이웃이 될 농민과 우리의 삶터가 될 농촌, 그리고 우리의 생계와 직결된 농업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이해하는 것이다.

“농민들의 손은 어디를 가도 다 똑같다. 그건 농부의 표정이기도 하다. 두툼하며

손가락이 굵고 짧다. 손마디는 거칠고 마디마디에는 흠냄새가 배어 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도 역시 그러했다. 부모님의 손에 비하면 내 손은 매끈하지만 그 손에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을 본다.” — 이태근 『농부로부터』 중에서
글 정우창 산지귀농귀촌학교 교장·흫살림 이사

유기농업 발전

흫살림 과 **대신택배**
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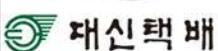
대신평기화물(주) 국내택배서비스, 노선(정기)화물운송, 제3자물류
대신평국제운송(주) 미국, 유럽, 아시아 국제화물운송, 복합운송주선

대신평물류개발(주) 물류연구 개발 및 건설, 시설유지보수 관리
대신평복합물류(주) 무역 유통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 활력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대신택배는 농촌사회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017년 12월 제 5회 농촌사회공헌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327-6)

Tel. 고객센터 043-222-4582 | 영업부 070-4313-5410~8 | 대표번호 043-255-3211 / Fax. 고객센터 043-255-3220 | 영업부 043-256-3220 | 대표번호 043-255-3220

미생물 분비물이 흙 입자 떼알화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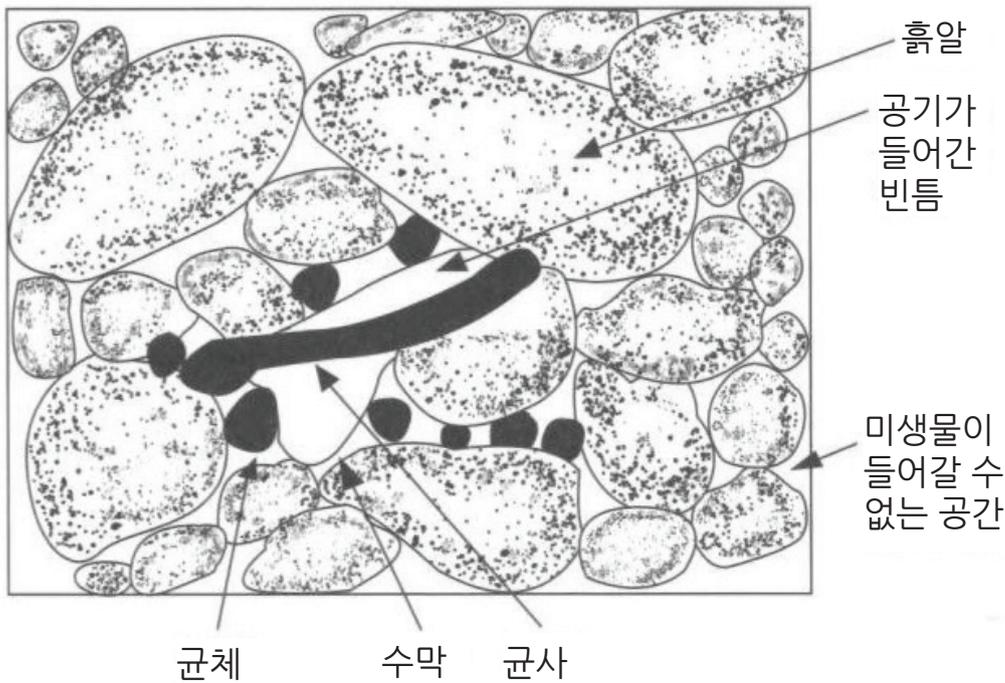
흙 살리기<4>

토양의 공간과 미생물

미생물, 흙 오염시키는 유기화합물 분해

■ 흙은 많은 미생물이 사는 집
 흙의 기능으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흙을 집으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존재이다. 약 1g의 흙 속에는 적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종류도 세균, 곰팡이, 방선균, 효모 등 매우 다양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절대 호기성 미생물과 절대 혐기성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있다. 흙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미생물들이 활동을 계속하여 유기물을 무기질로 분해하고 있다. 미생물들의 활동에너지원은 유기물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흙이 가지는 정화작용의 정체이다. 또 미생물에 비하면 그 수가 적지만 아주 많은 토양 소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놀랍게도 불과 4~5컵의 흙 속에는 전 세계 인구보다 많은 수의 미생물과 소동물이 살고 있다. 종류 또한 많아서 수만 종이상이 되기도 한다. 바로 여

기에 '흙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앞서 흙의 떼알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 떼알 구조의 형성에는 미생물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세균은 체외에 점질물을 분비하여 흙 입자를 결합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흙 입자의 떼알화에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물질이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 사상균에는 그 균사가 입자 자체를 연결하여 떼알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떼알은 미생물들의 좋은 거처가 된다. 또 앞서 흙이 매우 균등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미생물의 서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떼알의 바깥쪽과 안쪽에서의 세균 서식방법은 각각 다르다. 건조에 약한 세균은 떼알 안쪽에 많이 분포해 있지만, 건조에 강한 세균은 바깥쪽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흙 속에 몇 만 종류의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이러한 흙의 불균



등성, 즉 이질적인 성질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흙 속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생존하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은 흙 속 유기물의 양, 수분, 산소, 온도, 수소이온농도(pH) 비료, 농약의 사용에 따라서 크게 촉진되거나 약해진다.

특히 최근 농약 등 흙을 오염시키는 유기화합물이 농경지에 빈번하게 뿌려지면서, 흙 속에서 이들을 분해하는 능력도 한층 더 주목받게 되었다. 이런 물질의 분해도 미생물이 하는 일이다. 이처럼 토양 미생물은 '자연의 청소부'라고 불리어진다. 지렁이뿐만 아니라 흙 속의

다른 소동물들도 지렁이와 같은 유의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흙 속의 소동물들은 흙 속에서 이동하거나 흙을 먹고 교반·경운하면서 토양의 떼알을 형성시키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통기성과 투수성을 좋게 한다. 말하자면 흙의 '자연 경작자들'이다. 글 이태근 회장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4>

발효된 퇴비는 유해 미생물 생육 억제

농사를 잘 짓고 경험이 많은 농부일수록 '퇴비는 발효가 생명'이라고 말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다. 완숙퇴비와 생퇴비를 똑같이 투입한 뒤 농사를 지으면 당장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생퇴비는 토양에서 후발효가 일어나 작물에 피해를 주고, 또 병충해도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완숙퇴비는 그렇지 않다. 발효를 무시한 채 무조건 유기물만 많이 넣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위험천만하다. 한 번 더 설명하면, 우리의 농토에서는 매년 작물의 재배로 각종 병을 일으키는 유해 병원균이 발생한다. 이러한 땅에 발효가 잘되어 유익한 균이 듬뿍 들어 있는 퇴비를 주면, 퇴비에 있는 유익한 균들이 유해 미생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잡아먹는 천적의 역할을 함으로써 병충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농토는 점차 살아 있는 땅이 된다. 반대로 생퇴비나 미숙퇴비를 넣으면 퇴비에 좋은 미생물 대신 나쁜 미생물이 우점하고, 병충해가 더 심하게 발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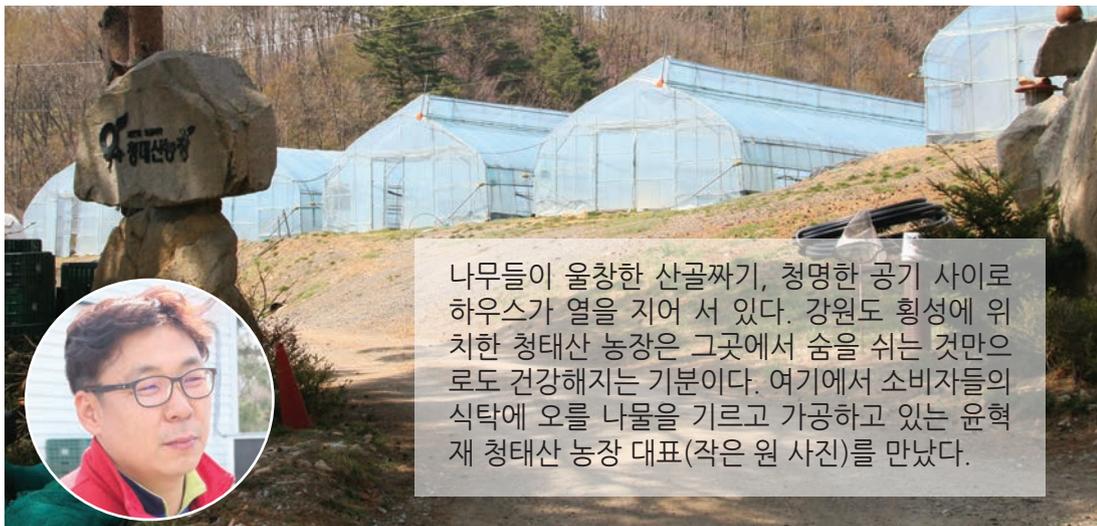
여 농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점점 더 땅이 나빠질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유통되는 퇴비의 90% 이상에서 유해 선충이 다량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이는 모두 미숙퇴비에서 비롯된 문제일 것이다. 필자가 직접 3개월 동안 퇴비를 발효시킨 뒤 분석을 의뢰해 유해 선충을 조사해보니 검출되지 않았다. 3~6개월 정도 퇴비를 발효시키면 후숙 단계에서 유익한 균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유해 선충을 잡아먹는 천적인 퇴비선충(일명 부식선충)이 발생했다. 또한 3개월 발효된 퇴비와 시중에 유통되는 미숙퇴비의 방선균류 수를 조사하니 발효퇴비에 중온성 방선균류는 300배, 고온성 방선균류는 30배 정도 더 많았다. 퇴비를 사용하는 목적은 토양의 통기성과 배수성 같은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것 외에, 생물학적인 효과와 화학적 개량 등 종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가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퇴비를 발효시켜 배양된 유익한 미생물을 농토에 넣어 유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잡아먹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한다면 퇴비의 발효에는 별 관심이 없고 생유기물이라도 넣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아주 위험하다. 땅심이나 흙의 생명력은 모두 잘 발효된 퇴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 토양 1g에 10억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있다고 하는데, 2억 마리 정도만 있어도 쓸 만한 땅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토양 미생물은 질 좋은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남용한 결과, 4천만 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는 쓸 만한 땅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25년이 지난 지금은 2천만마리 정도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이런 흙은 1년이 되어도 흙속 벗질 같은 새 유기물을 분해할 능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질 좋은 원료를 선택해서 잘 발효된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유기농업의 기본은 흙을 가꾸는 퇴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 석종욱 (사)흙살림연구소 대표

“삶지 않고 먹는 나물 있어요”



나무들이 울창한 산골짜기, 청명한 공기 사이로 하우스가 열을 지어 서 있다.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청태산 농장은 그곳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여기에서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나물을 기르고 가공하고 있는 윤희재 청태산 농장 대표(작은 원 사진)를 만났다.

윤희재 유기농 청태산농장 대표 녹차 덫는 방식 응용해 건나물 제조

■ 나물, 쉽게 먹을 수 없을까
요즘 뜨고 있는 식품 중의 하나는 단연 가정간편식(HMR)이다. 바쁜 도시인들에게 간편하고 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보다 건강하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는 없을까. 윤희재 대표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 건나물 시장에 도전했다. 밥을 지을 때 쌀과 함께 바로 넣어 먹을 수 있는 <한끼 곤드레>를 비롯해 말린 후 껍질을 부숴 사용이 간편해진 <무청시래기> 등을 내놓았다.
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해 건나물을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이 삶지 않고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 맛과 향기 지킬 수 없을까
나물의 대부분은 조금일지라도 독성을 가지고 있어 삶거나 데쳐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삶으면서 맛이나 영양성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윤 대표는 영양성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맛과 풍미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녹차 덫는 방식을 도입했다.
먼저 나물을 찌서 겉부분만 열을 받게 한 후 바로 냉각시키면 그 열이 안으로 들어가 맛이 우러난다. 이후 일반건조기로 건조하는 대신 탈수 후 덫는다. 그리고 다시 나물을 비벼서 부순 후 건조시켜 60℃ 이상에서 살균시킨다. 처음 삶는 작업에서는 식염을 처리해 보존기간이 길어지고 색도 보존하며 세균침입 또한 방지한다. 이런 작업을 거친

건나물은 맛과 향이 오래 간다. 그래서 일반 건나물에 비해 가격이 2~3배 비싸지만 재구매율이 높게 나온다.

■ 약이 되는 음식이 없을까
올 초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대표음식으로 강원나물밥이 선정되었고 전문점이 26군데 생겼다. 윤 대표의 4가지 건나물(곤드레, 곰취, 어수리, 참취)은 이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다. 나물밥을 하는 식당에서도 처음엔 비싸다고 쓰질 않았다. 하지만 한 번 써보고서는 단골이 된 경우가 많다. 나물을 삶고 말리는 수고에 비하면 그 비용을 아끼면서도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을 사람들이 먹으면 좋겠다”며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만든 식재료를 찾아 많이 애용해주시길 바란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글·사진 이방현 기자

분구로 구근 작아져 튤립꽃이 줄어든다

꽃밭지기의 농촌생각<3>



일주일 자리를 비웠더니 온통 꽃들이 만발했다. 어제는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다시 찾아온 듯하고 오늘 아침에는 서리까지 내려 걱정을 했지만 둘러보니 피해는 없는 듯하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지만 식물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봄철 꽃이 필 때는 한 번씩 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닥쳐 과수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는 한다.
꽃이 핀 상태에서 서리가 내리면 암술 주두가 얼어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거나 열매와 상관이 없는 관상수들은 이런 피해와는 관계가 없다.
우중충하던 정원에 새싹이 돋고 나무에도 연초록 잎이 돋아나니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몇 년 전에 심은 튤립들이 아직 꽃을 피우고는 있지만 처음보다는 차츰 꽃을 피우는 개체들이 줄어드는 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탓도 있지만 분구가 되어 구근이 작아져 그런 것이다.

글 이태호 휴살림현장농민연구원

잿빛곰팡이병 잡아라! 방제와 생육촉진을 한 번에!

토리

유해식물병원균을 억제하는 토착미생물(특허번호 0417632)로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균핵병, 잎곰팡이병, 모잘록병, 녹병 등 주요 토양 및 공기전염병원균을 억제합니다.



*등록공시: 공사-2-4-58
*등록번호: 43-살균-1

*품 목 명: 트리코델마 하지아눔 YC459 분상제

구입 및 문의사항 휴살림 농자재 사업본부 043-216-8179

건강한 토양을 위해! 튼튼한 작물을 위해!

입살림!

휴살림 미생물 배양기술과 농촌 진흥청 특허 미생물(특허번호 100407074)로
휴과 환경에 유익한 제품입니다.

*바실러스서브틸리스 JKK238 액상제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 휴살림 | shop.heuksalim.com

친환경 농축수산물 전문 쇼핑몰

마켓투유

가정의 달 감사 이벤트

사랑하는 부모님,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문의 및 주문전화 : 1544-1092

쇼핑몰주문 : www.marketoyou.com

사랑하는 부모님과 고마운 분들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황금 약도라지 진액 80ml x 30포
22,000원



유기농 블루베리 선물세트
47,000원



흑마늘바르게담아 70ml X 30포
85,000원



양배추바르게담아 100ml X 30포
44,000원



유기농 야채수 150ml X 30포
30,000원



친환경 생표고버섯선물세트
1kg 25,800원 / 500g 15,800원



홍살림 기름세트 실속형
40,000원



유기농선식 슈퍼푸드
25,300원



유기농 아로니아 생즙 500g
20,000원



무농약 도라지티백차 30티백
20,000원

캠핑용 먹거리 대전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
무항생제 삼겹살과 친환경 채소로 즐거움을 더하세요.



무항생제 등심 200g
21,900원



무항생제 안심 200g
29,000원



무항생제 삼겹살 400g
16,000원



무항생제 목살 400g
16,000원



무항생제 채끝살 200g
19,900원



유기농 간장닭갈비 400g
15,700원



유기농 간장닭갈개구이 400g
14,500원



유기농 닭껍질꼬치 250g
7,500원



유기농 스모크 닭가슴살 150g
5,000원



친환경 표고버섯 1kg
6,900원



친환경느타리버섯 200g
1,500원



친환경 적상추 150g
1,200원

제철과일로 영양성분은 기본 맛은 덤!

 유기농 한라봉 1kg 5,900원	 유기농 바나나 800g 5,000원	 유기농 그린키위 500g 3,000원	 친환경 참외 1kg 8,500원	 저탄소 사과 2.5kg 13,800원	 친환경 대추방울토마토 1kg 5,500원	 친환경 토마토 1kg 5,000원																										
 친환경블루베리 200g 9,900원	 유기농 냉동 블루베리 500g 12,500원	 살림두부 350g 3,000원	 무항생제 메추리알 24입 2,500원	 동물복지 유정란 10구 10,000원	 유기농 골든퀸 백미 8kg 22,000원	 유기농 현미 4kg 20,000원																										
 토종선비잡이콩 400g 6,000원	 친환경 파프리카 1입 2,900원	 친환경 청상추 150g 1,200원	 친환경 대파 300g 1,200원	 무농약 황당근 500g 3,300원	 바다의 싱싱함과 신선함을 그대로 싱싱 건강 수산물																											
 친환경 근대 200g 1,600원	 친환경 아욱 300g 2,000원	 생들기름 120g 7,700원	 husallimchamgirom 250ml 22,000원	 husallimdeugirom 250ml 15,400원																												
 어린이달과자 70g 4,500원	 유기농 설탕 1kg 4,200원	 아침든든 영양죽 45g 4,400원	 달가슴살 야채죽 45g 4,400원	 한우고기 버섯죽 45g 4,4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 <th>가격</th> </tr> </thead> <tbody> <tr> <td>통영 꽃멍게 1kg</td> <td>1,900원</td> </tr> <tr> <td>통영 자연산 돌문어(생물) 1kg</td> <td>25,900원</td> </tr> <tr> <td>주꾸미(급생) 500g</td> <td>14,800원</td> </tr> <tr> <td>통영 바지락살 250g</td> <td>6,500원</td> </tr> <tr> <td>자연산 거북손 500g</td> <td>9,900원</td> </tr> <tr> <td>통영 피조개 (피꼬막) 1kg</td> <td>2,900원</td> </tr> <tr> <td>키조개관자(중) 200g</td> <td>7,500원</td> </tr> <tr> <td>통영자연산 바다장어(소 8~11미)</td> <td>11,900원</td> </tr> <tr> <td>키조개 1마리</td> <td>3,000원</td> </tr> <tr> <td>바지락살 250g</td> <td>6,500원</td> </tr> <tr> <td>간멍게 400g</td> <td>5,900원</td> </tr> <tr> <td>빨소라 1kg</td> <td>11,900원</td> </tr> </tbody> </table>		품목	가격	통영 꽃멍게 1kg	1,900원	통영 자연산 돌문어(생물) 1kg	25,900원	주꾸미(급생) 500g	14,800원	통영 바지락살 250g	6,500원	자연산 거북손 500g	9,900원	통영 피조개 (피꼬막) 1kg	2,900원	키조개관자(중) 200g	7,500원	통영자연산 바다장어(소 8~11미)	11,900원	키조개 1마리	3,000원	바지락살 250g	6,500원	간멍게 400g	5,900원	빨소라 1kg	11,900원
품목	가격																															
통영 꽃멍게 1kg	1,900원																															
통영 자연산 돌문어(생물) 1kg	25,900원																															
주꾸미(급생) 500g	14,800원																															
통영 바지락살 250g	6,500원																															
자연산 거북손 500g	9,900원																															
통영 피조개 (피꼬막) 1kg	2,900원																															
키조개관자(중) 200g	7,500원																															
통영자연산 바다장어(소 8~11미)	11,900원																															
키조개 1마리	3,000원																															
바지락살 250g	6,500원																															
간멍게 400g	5,900원																															
빨소라 1kg	11,900원																															

건나물

 유기농 건가지 100g 4,000원	 유기농 건곤드레 30g 6,000원	 유기농 건고춧잎 50g 3,600원	 유기농 건취나물 30g 6,000원	 유기농 건시금치 50g 4,800원	 유기농 삶은우거지(냉동) 500g 26,000원
---	---	---	---	---	--

친환경 햇감자 출시! (5월 14일 판매 개시)
친환경으로 키워 영양 만점, 품질 만점!
예약판매 1544-1092



5월, 초록 전사들의 말을 듣다

월령의 지혜를 배운다



봄 산을 흐드러지게 했던 산벚꽃들이 초록 속으로 사라지는 5월에는 절기 입하와 소만이 들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모종들도 입하 전까지는 다 밭으로 나갑니다. 이때 농부는 초록생명을 흙에 모시는 전사(戰士)입니다.

홍살림 동일한의원 원장 박석준이 말합니다. 3월 중순에 “저만치서 살살 걸어오시는 어르신께/ 이젠 봄이네요 아침인사를 하니/ 감정도 신지 않고/ 표정 변화도 없이/ 달짝거리는 입술로/ 이제 농사 시작해야지 하시며 지나더란다// 한테 그 들릴락 말락한 말씀이 얼마나 강렬한지/ 농전지사(農戰之士)라는 말과 함께/ 전사(戰士)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아마 천지의 명령에 한 치의 오차도 두지 않고 따르는 삶의 자세에서 진정한 전사의 느낌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새너디 할매가 마늘밭 풀을 맨다// 일자도 장소도 틀림없이/ 지난해와 똑같은 날, 똑같은 밭이다/ 참 신기하기도 하지// 미숫가루 한 그릇 타드리고/ 썩떡 한 덩어리 얻어먹는데/ 해 지기 전에 비가 칠 것 같다는 한 소식 전해 주신다/ 이런 날 모종이 잘 된단다/ 그래요?// 부랴 부랴 읍내 종묘상 다녀와서/ 고추 모종을 한다/ 가지 모종을 한다/ 수박 모종을 한다/ 호박 모종 심는다/ 단호박 모종도 단단히 한다/ 어라, 진짜네?// 해 지기 전 비가 쳐서/ 강변에 매어 놓은 염소 먼저 들인다// 굵은 비 아까워서/ 물외 모종 심는다/ 참외 모종 심는다/ 토마토 모종 심는다/ 빗방울도 방울방울/ 방울토마토와 같이 심는다// 참 신기하기도 하지”(박성우 「입하」에서)

새너디 할매의 몸이 천지의 순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흙과 더불어 하는 생산의 전사를 거쳐 이제 천지의 움직임까지 읽는 지식을 갖게 된 분입니다. 어쩌면 천지의 법이 현현한 ‘화신’(化身, Incarnation - 추상적인 개념에 육체를 부여하여 인간의 형상을 갖추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 속의 이 귀한 분들은 모두 ‘허리 어깨 팔 무릎’이 아프신 분이고 해마다 목정밭이 늘어납니다. 하루빨리 농업의 공공재 역할을 실현하는 농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실현되고, 어르신들의 초록 지혜가 이 땅에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부전사가 모신 논밭의 초록생명들도 초록불꽃의 말을 합니다.

만평을 가득 채운 작물
흙으로 들어간 씨앗이 초록 싹을 올리고
제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 고요하고 격렬한 초록불꽃들

- 줄임 -

지상에서의 삶은 오직 자기의 어깨를 딛고
조금씩 오늘을 넘어서 떠오르는 것임을
오호라 사랑은 일체의 허구 없는
사랑할 수 있는 몸의 일이라는 걸
만평을 가득 채운 초록불꽃 지금 일령인다
자기를 넘쳐 자기에게로 가는

매일매일이 서막인 저 사랑이여

- 오철수 「초록불꽃을 사랑하다」에서
글 오철수 시인·문학평론가

5월의 농사 이야기-입하와 소만

모내기 준비로 한창 바빠지는 ‘소만’

■ 입하

입하는 24절기 중 일곱 번째 절기로 곡우(穀雨)와 소만(小滿) 사이에 들어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으로 맥량(麥涼), 맥추(麥秋)라고도 하며, ‘초여름’이란 뜻으로 맹하(孟夏), 초하(初夏), 괴하(槐夏), 유하(維夏)라고도 불린다.

이때는 산과 들에 신록이 일기 시작하며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고, 묘판에는 뽕씨의 싹이 터 모가 한창 자라고, 밭의 보리이삭들이 패기 시작한다.

옛날 벼로 이모작을 하던 시절에는 입하 무렵에 한창 못자리를 하므로 바람이 불면 씨나락이 물리게 되는데, 이때 못자리 물을 빼서 피해를 방지하라는 뜻으로 “입하 바람에 씨나락 물린다.”는 말이 있다. 입하가 다가오면 모심기가 시작되므로 농가에서는 들로 씨를 심고 나온다는 뜻으로 “

입하물에 씨를 심고 나온다.”라는 말도 있다. 재래종 벼를 심던 시절에는 입하 무렵에 물을 잡으면, 근한 달 동안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비료분의 손실이 많아 농사가 잘 안 된다는 뜻으로 “입하에 물 잡으면 보습에 개똥을 발라 갈아도 안 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입하는 특히 벼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이다.

또한 고추 같은 여름 채소는 서리에 약해 간혹 곡우 지나 늦서리가 오는 때가 있어 곡우 다음 절기인 입하에 심는 게 좋다.

■ 소만

소만은 24절기 중 여덟 번째 절기이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하여 가득 찬다[滿]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는 썸바귀 잎을 뜯어 나물을 해먹고, 보리이삭은 익어서 누런색을 띠니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조선 헌

종 때 정학유가 지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 보면 “4월이라 맹하(孟夏, 초여름)되니 입하, 소만 절기이다.”라고 했다. 이때부터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며 식물이 성장한다.

소만 무렵 농촌은 모내기 준비로 한창 바빠진다. 이 무렵 농촌은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낸다.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한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이미 모내기를 마친 곳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만을 중심으로 벼를 심는 곳이 많다. 벼는 심었지만 가을이나 돼야 먹을 수 있었으니 소만 무렵 수확하는 보리는 우리 조상들이 보릿고개를 견뎌내는 귀중한 식량이었다.

‘소만 바람에 설늪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시기 아침에는 꽤 찬바람이 분다. 동이 트는 새벽에는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시와 그림이 있는 풍경



봄길을 걸으면서

김장욱

서툰 붓을 들어
봄을 그린다
민들레 제비꽃
푸른 산을 배경으로
저렇게 청초한 빛을 찾아
검은 먹물을 풀어
천천히 그린다

경이로운 봄날
온갖 색채 피어나는
빛의 아우성들
환한 햇살 아래 움직이는
생명의 노래들 함성들
아우성이여

일필휘지는 필요 없다
자연을 그려 나가는 것
나비를 보고 풀벌레를 보고
영역싸움을 하는
나방들의 비행
애벌레의 꿈지락거림
어느 하나 빠져도
봄은 완성되지 않으리

삶은 그래서
의미가 있었고
봄을 찬양하는 언어 또한
생명을 지닐 수 있었으니
천천히 써보는
무위자연의 단어들
단어가 만드는 문장들의
긴장감은 황홀하여라

5월 생활꾸러미 예정 품목

5월 1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살림두부	350g
콩나물	300g
양파	1kg
비름나물	200g
돈가스	500g
샐러드채소	1팩

5월 2주차

품목	단위
파리고추	1봉
멸치	1봉
깐메추리알	1봉
꼬마새송이버섯	1봉
쌈배추	1봉
양배추	1봉
무	1봉

5월 3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살림두부	350g
건새우	1봉
마늘종	1봉
양상추	1봉
콜라비	1봉
가지	1봉

5월 4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살림두부	350g
무쌈	1봉
무순	1봉
감자	1봉
닭가슴살	1봉
파프리카	1봉

※ 품목과 단위 내용은 산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흠살림 후원회원 명단

가림다마을영농조합, 강사영, 강승희,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오전, 권택기, 김광부, 김규운, 김기연, 김남운, 김동연, 김동진, 김명실, 김봉기, 김생수, 김수철,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곤, 김정송, 김준권, 김중상, 김홍대, 김행숙, 나기창, 나준연, 도재천, 리병현, 리양채, 리영환, 류훈희, 민성기, 박기활, 박동운, 박래훈, 박상일, 박영규, 박정국, 박중삼, 박중수, 박중원, 박중화, 박준수,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배동환, 배은아, 백미숙, 백운남, 백은숙, 서성내, 서순악, 석종옥,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성윤제, 송기봉, 송동홍, 송미선, 송영환, 송인훈, 송지은, 신문수, 신연관, 신중하, 신지영, 신현식, 심민보, 심정섭, 안정택, 어해용, 염선업, 오과칠, 오복수, 오영세, 원희성, 우범기, 우중서, 육종식, 윤국현, 윤성희, 윤슬기, 이기출, 이명순, 이명환, 이민채, 이봉휘, 이성원, 이수일, 이연호, 이영희,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준규, 이채원, 이철민, 이태근, 이필규, 임동영, 임원택, 임진수,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세규, 장소애, 전홍택, 정구홍, 정규원, 정규태, 정기환, 정명순, 정방현, 정석조, 정쌍은, 정 은, 정인숙, 정정신, 정창환, 정청천, 조기진, 조 술, 조중기, 주윤식, 주현경, 진필경,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병국, 최재학, 최춘식, 한정화, 허상오, 홍석민, 홍용기, 홍종윤, 황대호, 황서영, 황인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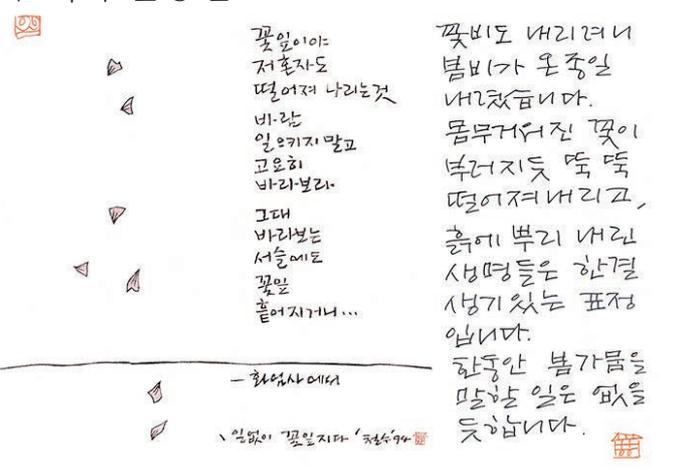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70-4035-5979

흠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친환경농업 교육 및 컨설팅, 유기농 정보지 제작, 친환경농업 연구 등 흠살림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흠살림연구소의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밀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지제작, 토종씨앗 보존 및 전파 등 우리 흠과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사)흠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납부처: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흠살림연구소.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봄비가 온종일



■ 4월 흠살림 주요 활동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2~6일	괴산	교육	10	현장실습교육: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6일	괴산	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유기자재만들기
9일	광주	회의		농림부연구과제 운영회의
11일	화성	교육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유기농업의 이해
11일	단양	교육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유기농업의 이해
12일	괴산	견학		세종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16일	괴산	교육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유기자재 만들기
18일	괴산	교육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유기자재 만들기
19일	청송	교육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유기자재 만들기
20일	청주	교육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유기자재 만들기
23~24일	괴산	교육	24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유기농업의 이해
23일	서울	회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 2018년 정기총회
24일	전주	회의		제27차유기농업기술위원회
25일	괴산	교육	25	충북유기농업연구소 유기자재 만들기
25일	청주	회의		광역유통지원사업추진회의

친환경인증 표시 안내

■ 인증표시 안내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분류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

●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유기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어 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무항생제 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어 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농산물 우수 관리제도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친환경인증이 아닙니다.

이제 장보러 가지 마세요
꾸러미하세요

• 꾸러미 상담/주문전화 :
043-212-0935
shop.heuksalim.com

꾸러미란 어머니가 싸주시던 보따리를 매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직거래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철 농산물이 매주 배달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꾸러미로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장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1주일 먹거리가 택배로 배달됩니다.

알찬꾸러미

월4회 12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와 무항생제 병사육 정란, 우리콩 두부 등 필수 생활꾸러미와 과일 2~3종으로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생활꾸러미

월4회 10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병사육정란, 우리콩 두부,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화요일

채소꾸러미

월4회 60,000원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꾸러미로, 유기농 무농약 채소로만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화요일

과일꾸러미

월2회 80,000원

국내산 친환경 과일로,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제철과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공자의 ‘나’는 누구인가



앞에서 양주는 ‘위아爲我’를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말이 아니다. 양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 사람은 맹자다. 그러나 『여씨춘추』 「불이不二」에서는 양주가 ‘귀기貴己’했다고 말한다. 맹자가 이를 위아로 바꾼 것은 양주를 무군無君, 곧 군주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사회질서를 없애려는 자로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나의 생명[기己]을 중시하고 그것이 외부의 사물[물物]에 얽매이지 않기를 강조한 양주의 문제제기를, 맹자는 나와 남[인아人我]의 문제로 바꾸었다. 그래서 양주를 세상의 이익[리利]을 위해서는 자신의 터럭 하나도 뽑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렸다(터럭 이야기도 양주가 한 말이 아니고 백성자고伯成子高가 한 말이다). 양주는 이기利己를 말한 적이 없다. 양주가 말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물을 가벼이 여기고 삶을 무겁게 여겨(輕物重生) 외부의 사물에 몸을 얽매이지 말라는 것(不以物累形)과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드러나

게 하고 내 몸의 참된 것을 보전하라 卍 것(全性保眞. 『淮南子』 「汜論訓」), 사회적으로는 어진 일을 행하되 스스로를 어질다 여기는 마음을 없애라는 것(행현이거자현지심行賢而去自賢之心. 『韓非子』 「說林上」) 등이다. 춘추시대에 ‘나’라는 개체를 뜻하는 단어는 ‘기己’였다. 공자에게 있어 ‘기’는 끊임없이 외부, 곧 일(사회적 측면=사람의 일)과 사물(자연적 측면)에 대해 실천하며 그 실천 과정에서 지나침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지나친 것을 고쳐나가는 자기였다. 한 마디로 극기克己하는 자기였다. 고쳐나감의 기준은 ‘나’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편안함[安]’과 ‘이로움[利]’이다(『논어』 4.2). 여기에 ‘좋아함[好]’이나 ‘즐거움[樂]’과 같은 감정이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자에게 편안함의 기준은 나라는 개체[己]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나[我]와 남[人] 사이에서 느끼는 편안함이다. 인仁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편안함이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공자에게 있어서 나의 감정, 나아가 욕망이라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고쳐나감

의 기준으로, 편안함 대신에 예禮나 의義가 들어서면 개인은 더 이상 욕망하는 주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자의 나[己]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다. 『논어』에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내가 남의 평가를 통해서만 인仁함을 인정받는다는 말이다. 이에 비해 양주는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귀한 것이라는 자각은 타인의 인정과 관계가 없다. 그것은 욕구하는 내 몸[己]을 인정하는 것이다. 생명에 의 충동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욕구는 사람의 본성[性]이다. 양주는 이 본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눈은 좋은 것을 보려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들으려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뒤에 고자告子는 이를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食色, 性也]’이라고 말한다. 양주는 이런 점에서 사람의 ‘성’이라는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상가로 평가된다(그레임, 『도의 논쟁자들』. 『논어』 17.2에서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라는 구절에서의 ‘性’은 ‘生’으로 본다). 양주에 대한 오해 중의 하나는 그가 쾌락주의자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양주는 ‘중욕縱欲’이 아니라 ‘절욕節欲’을 말했다(‘중욕’도 사실은 욕망의 흐름에 맡긴다는 뜻이다). ‘절욕’이란 욕망의 역제가 아니라 욕망을 적절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양주는 안빈락도安貧樂道가 아니라 안빈락생安貧樂生, 곧 삶을 즐기므로써 가난함도 편안하게 여긴다. 또 하나는 양주가 생명을 절대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양주는 사회적으로는 어짚을 실천할 것[行賢]을 요구했으며 다만 스스로를 어질다고 여기지 말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예는 『열자』의 여러 편에서 양주가 이타적 행위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묘사된 것으로도 반증될 수 있을 것이다. 몸의 틀인 형形(이는 몸의 집, 곧 몸집이다)과 그 몸을 채우는 기氣와의 관계, 움직이며 살아가는, 운동하는 몸인 신身과 구조물로서의 몸인 체體, 몸과 마음의 관계 등에 관한 논의는 『관자』의 사편四篇(「心術上下」, 「백심白心」, 「내업內業」)을 비롯하여 『여씨춘추』나 『회남자』, 『열자』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어졌다(『관자』 「

水地」, 「地員」, 「度地」 등). 이러한 논의는 의가醫家와 농가農家の 철학적 기초가 된다. 동아시아의 전근대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농업과 의학을 들어야 할 것이고 하나만 들라고 하면 농업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철학은 농업과 의학을 배제해왔다. 니덤은 동아시아의 전근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과학은 한의학이라고 하였지만, 필자는 한의학만이 아니라 농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근대 과학과 사유방식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본다. 음식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의 모든 음식(무엇을 먹을 것인가)과 그 요리법(어떻게 먹을 것인가)은 오래된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이는 각 사물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과 다른 본성과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반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날 농업과 의학이 ‘과학사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휴살림 동일한의원 원장, 동의과학연구소 소장

휴살림균배양체 직거래 특별할인판매실시!

토양종합관리제 휴살림균배양체! 직거래로 아주 싼 값에 구매하세요!

친환경유기농업자재



휴살림을 믿고 응원해주시는 농민여러분!
 유기농업자재(공시-3-3-152) 휴살림균배양체를
 정가 7,900원에서 **6,000원으로 특별할인해** 모십니다.
유기농업자재로 인증받은 품질 좋고 발효가 잘 된 퇴비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현금결제 시 추가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품질 미생물퇴비 휴살림균배양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18년 특별판매가

7,900원 → **6,000원**

(2개월 내 결제)

괴산, 청주 방문구입

2개월 내 결제: **5,700원**

현금즉시결제: **5,500원**

2018년! 새로운 개념의 비료가 출시됩니다!



리신독성 걱정이 없는 발효유기질펠릿 **휴나라 발효펠릿**

질소가 풍부한 발효콩깻묵아미노산그래놀 **휴살림아미노볼**

(친환경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등재완료!)